

- 정보의 제공방법이 종이문서, 디스켓, M/T등 대부분 비전자적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이 어렵고, 업무처리에 시간 및 비용과다 소요
- 동일정보의 중복수집과 재 입력에 따른 인력 및 비용소요
- 기관간 정보의 불일치로 행정착오 등 행정의 신뢰성 저하

주민, 부동산, 자동차 정보의 전산화는 국가기간전산망(1987~1996)과 정보화지원사업, 소관부처별 자체 정보화 사업을 통해 추진하여왔다. 주민등록(5,630만 건), 토지(3,400만 필지), 건축물(1,100만 건), 자동차(6,100만 건)등 분야별로 전국적인 DB를 구축함에 따라 진일보한 정보관리의 수준과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크다.

그러나,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각 업무별로 개별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, 타 부처(기관), 타 업무와의 정보공동활용은 원활하지 않다. 이는 기 구축된 정보의 전자적 활용이 특정 업무범위로 한정됨으로서, 보다 혁신적인 업무 개선과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.<sup>7)</sup>

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1세기 전자정부에 부응하는 완벽한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으로, 전자정부에 걸맞은 토지정보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, 지난 4월 전국토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 지적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일반 행정업무와는 달리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,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보 등 각종 행정지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로, 그 어느 분야보다도 철저한 공복의식과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.

이번에 개발 완료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(PBLIS)은 도면과 대장을 통합하여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더불어 지적정보는 물론 각종 시설물 등의 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이용함으로써 21세기 지적행정뿐만 아니라 세정 및 다른 행정업무의 발전과 미래의 지방행정이 나아갈 정보화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. ☺

7) 한국전산원, 상계서